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 멀리 푸른 언덕에(찬 146)

주를 기다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3:42-52

우리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 37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한울림교회 등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정지영 자매
3.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4. 지난 주일 안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손소독제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협 찬조)
5. 한울림 한국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Zoom) 시작합니다. 일시: 3월 20일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 오후1시 - 오후 3시 (문의 - 한윤미 Tel: 917-533-0709)
6. 다니엘 금식기도가 3월 28일(주일) 부터 4월 3일(토) 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지가 배부될 것입니다.
7. 3/29(월)~4/3(토)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3일은 현장기도회와 비대면기도회를 병행합니다. 참석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8.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 떨린 하루를 살고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교회력으로 보면 3월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살다보면 우리는 늘 반복된 일상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제가 오늘과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질문하면, “늘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기 쉽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 폭발” 한국에서 이런 말을 흔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회적 사관이 우리 민족 저변에 깔린 생각이다보니, 현재 만족스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생애는 폭삭 망했고, 다음 생애에 잘 해보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룹들은 Yolo를 외칩니다. Yolo란 “you only live once”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인생의 한번 뿐”이란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yolo swag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하면서 “죽기 밖에 더하겠어”라고 하면서 인생을 무책임하고도 향락적이며 소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두 가지 태도 모두가 믿는 자들이 가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한번 뿐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 속에 있습니다. 어떤 영원 속에 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번 뿐이지만, 이후의 삶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차이는 이번 생애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시간시간이 소중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덤덤히 지나가는 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가슴떨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떨린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